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지지(사회활동, 가족/사회관계), 정서문제

Influencing of Quality of Life for Elderly Employment Program Participants – Social Support(Social Activities, Family/Social Relationship), Emotional Problems

장신재*, 조자영**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Cin-Jae Chang(jangsin@sjs.ac.kr)*, Ja-Young Cho(jayoungcho@yonsei.ac.kr)**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사회활동, 가족/사회관계), 정서문제와 삶의 질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2,005명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대해 가족/사회관계는 정(+)적인 영향을, 정서문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활동은 정서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활동은 정서문제를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사회적 지지 | 사회활동 | 가족/사회관계 | 정서문제 | 삶의 질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social activity, family/social relationship), emotional problem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 participants.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2,005 participants from the data of the '2012 Elderly Employment Program Participants Surve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amily/social relationship had positive effects and emotional problem had negative effects to quality of life. Second, social activity had negative effects to emotional problem. Finally, social activity had mediator effects to quality of life through emotional problem.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were suggested.

■ keyword : | Social Support | Social Activity | Family/social Relationship | Emotional Problem | Quality of Life |

I. 서론

한국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국가 생산

성 저하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면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00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4

접수일자 : 2014년 07월 31일

수정일자 : 2014년 09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9월 29일

교신저자 : 조자영, e-mail : jayoungcho@yonsei.ac.kr

년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으며[1], 2004년 사업 시작 이후 2013년에는 처음의 약 7배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하였고[2], 2014년 사업 투입비용이 2,870억 원에 이르는 등 사업 규모가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렇듯 노인일자리사업은 양적 확대에 의한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질적 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양적 목표 달성과 같은 사업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됨으로써[3],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업의 목적은 다소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수행된 사업은 참여노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4].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5].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은 일반적인 노인의 그것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재정적 확대라는 전통적 대안 이외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핵심 요인들을 도출해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 요인들 중에서 개인 내적인 부분, 관계의 측면, 사회활동의 요소들이 삶의 질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Ferrans와 Powers[6]는 삶의 질이 건강 기능, 사회경제적 상태, 정서 상태, 가족 형태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삶의 질을 경험하는 노인들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7].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지지와 기능적 지지로 구분되며, 다수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적 지지를 주로 사용해왔다[8][9]. 구조적 지지는 주변인과의 관계와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삶

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9][10].

한편,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최근 정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노인이 고령화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질병과 사회적 소외, 주변인들의 상실 경험 등은 노인들에게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인식 등 좌절감을 갖게 하며, 그로 인해 노인들은 우울감과 불안감, 고독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11-13].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정서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14].

선행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 연구에서 나타난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만족 또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긍정적 삶의 수준으로서, 생활만족도나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복지감 등의 용어와 병용되어 왔다[15]. 기존 연구들은 (1)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수준), 관계 요인(배우자 관계, 자녀 관계), 사회적 요인(사회참여, 지역사회 환경), 이념적 요인(가족 중심주의, 노인차별주의), 일자리 요인(일자리 유형, 참여동기, 만족도, 급여, 직무내용, 근로환경, 교육 및 서비스)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15-17]와 (2)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같은 일자리 요인들과 삶의 질 간의 구조나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들[3][9][18]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 다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였다기 보다 일반적인 노인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들 또한 주로 정책적 차원에 그쳐 왔으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왔다.

한편, 삶의 질과 일자리 요인간의 구조나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직무와 관련된 요인에 집중함으로써 그 외 사회복지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실천적 함의에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일부 지역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제한이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사회활동, 가족/사회관계), 정서문제가 삶의 질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그 구조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서문제가 사회활동과 가족/사회관계라는 요인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정부의 '4대 핵심 국정과제'가 대두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18], 노인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와 소득보충 등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19].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크게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회공헌형은 노인일자리예산에서 참여노인의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전액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으로 구분된다. 시장진입형은 사업비와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운영하는 공동작업형과 제조판매형으로 구분되며, 인력파견형은 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형태이다[19].

2012년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2.9세로, 연령대별 참여자 추이는 60대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70대 이상 참여자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참여자 평균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80세 이상의 참여자 비율도 9.4%로 참여비율이 낮지 않다. 성별은 여성이 178,091명(66.2%)으로 남성 90,973명(33.8%)보다 많았고,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63.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참여동기는 경제적 도움(84.8%)이 가장 주된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참여(5.7%), 자기발전(3.7%) 순으로 나타났다[5].

2. 노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 정서문제에 관한 논의

2.1 사회적 지지와 정서문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범주 중 특히 사회활동과 가족/사회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제시되어 왔다[20-22]. 이길자·안혜경·김영선[2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동향인 모임참여, 가족간에 만나는 횟수 등이 보고되었으며, 김은경·하규수[24]는 노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노인의 정서적 상태가 영향을 미치고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하였다.

최형임·채현탁·송인욱[25]은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절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Maren[26]의 연구에서는 노인환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 기반이 없을 경우,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McPherson[22]은 노인들이 자녀나 친구로부터 받는 정서적 및 도구적 차원의 지지가 인생 후반에 있는 노인들이 인지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하여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2 사회적지지, 정서문제와 삶의 질

사회활동은 여가활동, 종교활동, 그 외에도 다양한 친목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노년기 사회활동은 중년기까지 행해온 다양한 활동 또는 상호작용의 범위를 새로운 형태로 전환시키거나 계속적으로 유지 및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만족스러운 노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27]. 특히, 문화스포츠 활동이나 친목활동을 포괄하는 여가활동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28]. 종교활동에 관해서도 Koenig과 Kvale[29]은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이 하지 않는 노인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하였으며, Idler와 Kasl[30]는 종교성이 있는 노인이 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므로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였다[31].

사회적 지지의 또 다른 요인인 가족/사회관계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와 그 외 친구나 이웃 간의 관계가 삶의 질에 일관되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32]. 그리고 Krause[33]는 노인은 친척과 친구, 이웃과 같은 사회지원망을 통해 노년기 역할상실과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음을 밝혔다[34].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에 있어 정서문제의 경로를 밝힌 연구로 소희영·김현리·주경옥[35]은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과 여가활동, 사회적 유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정서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wling et al[36]은 사회적 역할 상실과 가정에서의 역할 축소를 경험하는 노인들에게 있어 사회참여는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고, 환경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덜 느끼게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37].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요인 변수로 사회활동, 가족/사회관계를 선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써 정서문제를 선정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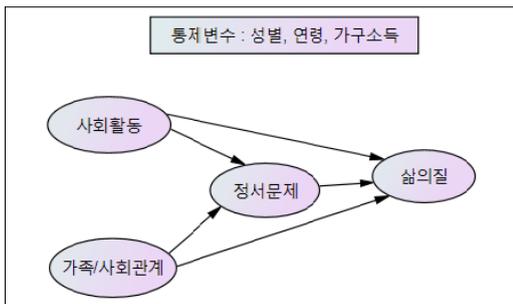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2 연구가설

- 가설1. 사회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가설2. 가족/사회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가설3. 사회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 가설4. 가족/사회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 가설5. 정서문제의 정도가 낮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가설6. 사회활동은 정서문제를 통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7. 가족/사회관계는 정서문제를 통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한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2012년 전국(제주, 세종시 제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22,381명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본은 각 일자리사업유형별로 200명씩 최소 할당 후 비례배분 한 뒤, 모집단의 시도별 및 지역크기별 구성비에 따라 비례할당하는 방식으로 추출하였다[5]. 표본의 크기는 2,005명이며, 본 연구에서는 표본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측정도구

3.1 삶의 질

삶의 질은 총 4 문항으로, '건강상태, 경제상태, 주거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81로 나타났다.

3.2 사회활동

사회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화단체 및 스

포즈단체 참여 여부, 친목단체 참여 여부, 종교단체 참여 여부로 구성하였다. 참여는 '1', 미참여는 '0'으로 코딩하였다.

3.3 가족/사회관계

가족/사회관계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지난 1년간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 만남빈도와 지난 1년간 따로사는 (손)자녀 만남빈도로 구성하였다. 만남빈도는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달에 한두번 정도, 3개월에 한두번 정도, 일년에 한두번 정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4 정서문제

정서문제는 총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가끔 사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문제의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82로 나타나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가구소득을 선정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본 데이터에서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코딩되어 있으며, 연령은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소득은 1년 동안의 가구소득액의 합계이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1.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통계자료 파악과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활동, 가족/사회관계, 정서문제,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65.3%)가 남자(34.7%)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70대(62.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28.3%), 80대 이상(8.9%)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육수준은 초교 졸업(39.5%), 중·고교 졸업(30.1%), 무학(22.2%), 대학 졸업 이상(8.1%)의 순이었다. 참여사업 유형은 공익형이 전체의 41.4%로 가장 많았고, 복지형(19.6%), 교육형(15.9%), 시장형(12.8%), 인력파견형(10.3%) 순으로 주로 사회공헌형 일자리 종사자가 시장진입형 일자리 종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005)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695	34.7
	여자	1,310	65.3
연령	60-64세	156	7.8
	65-69세	412	20.5
	70-74세	747	37.3
	75-79세	512	25.5
	80세 이상	178	8.9
교육수준	무학	446	22.2
	초졸	792	39.5
	중, 고졸	604	30.1
	대학이상	163	8.1
참여사업 유형	공익형	831	41.4
	교육형	319	15.9
	복지형	392	19.6
	시장형	256	12.8
	인력파견형	207	10.3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초 분석을 위한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성 가정을 왜도와 첨도로 확인한 결과, 정상분포 조건인 왜도 < 2, 첨도 < 4 이하로 나타나 정규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 = 2,005)

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사회활동	0.25	.25	.74	-.03
가족/사회관계	3.65	1.24	.50	.31
정서문제	2.81	.84	-.04	-.33
삶의 질	3.30	.64	-.07	.11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주요 변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1						
②	.07**	1					
③	-.16**	-.13**	1				
④	.16**	.17**	-.38**	1			
⑤	-.03	.01	-.04*	.13**	1		
⑥	-.15**	-.08**	.19**	-.11**	.12**	1	
⑦	.10**	.12**	-.22**	.23**	.08**	-.19**	1

*p<.05, **p<.01, ①사회활동 ②가족/사회관계 ③정서문제 ④삶의 질 ⑤성별 ⑥연령 ⑦가구소득

3.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측정변인들이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잠재변수인 사회활동, 가족/사회관계, 정서문제, 삶의 질의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219.66***$ (df=48), TLI= .96, CFI=.97, GFI= .98, RMSEA= .04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어 잠재변수들이 구조모형을 형성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고).

표 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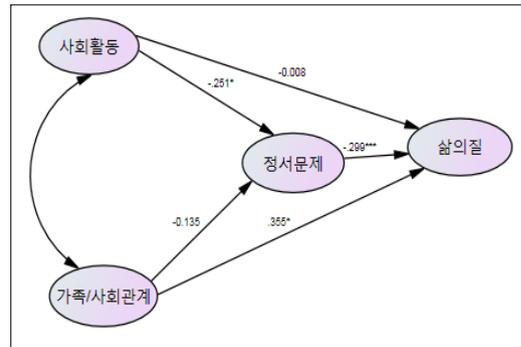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사회활동	문화·스포츠활동	2.51	.43	2.97**
	친목활동	3.19	.32	2.94**
	종교활동	1.00	.11	
가족/사회관계	친인척, 친구, 이웃 만남빈도	.85	.26	5.04***
	(손)자녀 만남빈도	1.00	.40	
정서문제	정서문제1	1.14	.79	29.30***
	정서문제2	1.19	.85	29.62***
	정서문제3	1.00	.69	
삶의 질	삶의 질1	1.00	.58	
	삶의 질2	1.35	.73	23.78***
	삶의 질3	1.27	.77	24.51***
	삶의 질4	1.21	.83	25.23***

p<.01, *p<.001

4. 구조모형 검증

위에서 검증된 측정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인과관계에 따라 구조모형을 형성하였다. 사회적 지지인 사회활동, 가족/사회관계를 외생변수로, 정서문제를 매개변수로,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chi^2=588.11***$ (df=81), TLI= .89, CFI=.92, GFI= .96, RMSEA= .06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표 5]에 제시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회활동 및 가족/사회관계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경로계수가 각각 -.01(t=.07), .36(t=2.53, p<.05)로 가족/사회관계가 삶의 질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은 기각되고, 연구가설 2는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족/사회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01

그림 2.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결과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사회활동 → 정서문제	-1.35	-.25	.57	2.37*
가족/사회관계 → 정서문제	-.20	-.14	.15	-1.30
사회활동 → 삶의 질	-.03	-.01	.41	.074
가족/사회관계 → 삶의 질	.36	.36	.14	2.53*
정서문제 → 삶의 질	-.21	-.30	.03	-7.55***

*p<.05, ***p<.00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회활동 및 가족/사회관계와 정서문제의 관계를 보면, 사회활동과 정서문제의 경로계수는 $-.25(t=2.37, p<.05)$, 가족/사회관계와 정서문제의 경로계수는 $-.14(t=-1.30)$ 로 나타나, 사회활동이 정서문제에 있어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은 지지되고 연구가설 4는 기각되었다. 사회활동의 정도가 낮을수록 정서문제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문제와 삶의 질 관계에서의 경로계수는 $-.30(t=-7.55, p<.001)$ 로 부(-)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문제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된다는 연구가설 5가 지지되었다.

5. 정서문제의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정서문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그림 2]에서 볼 때 가족/사회관계는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서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효과만 가지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에, 사회활동은 정서문제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정서문제는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활동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간접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문제가 사회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문제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은 매개효과는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이 가질 수 있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Bootstrap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38].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분석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활동이 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정서문제의 매개효과는 총효과와 간접효과가 $.075(-.135 \times -.299)$ 로 나타나 직접효과는 없고, 정서문제를 통한 간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완전매개 모형은 신뢰구간 $.079-2.100$ 에서 $.011$ 로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회활동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서문제를 통해서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6. 효과분해표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C 95% CI
사회활동 → 정서문제 → 삶의 질	.075	.000	.075	.079-2.100*

* $p<.05$, Bootstrap=2,000, BC= Bias-Corrected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에 사회적 지지와 정서문제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요인 중에서 사회활동, 가족/사회관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활동, 가족/사회관계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정서문제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사회관계 및 사회활동과 삶의 질 간 관계를 살펴 본 결과, 가족/사회관계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관계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다른 연구결과들[17][36][39]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가족/사회관계는 정서문제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서문제는 만남 빈도와 같은 양적인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질 또는 밀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사회관계가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노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인 노력이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투입을 요구하지 않고도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활동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일부 연구[16]와는 결과가 일치하였고,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결과들[28][40][41]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성이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상이한 양상을 띠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사회적 준비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본 조사의 결과를 여타 국가의 삶의 질 수준과 국제 비교해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 수준은 대만의 독거노인보다 낮았고[42], 브라질의 외래환자의 삶의 질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렇듯 매우 낮은 삶의 질 수준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2차 자료라는 한계로 인하여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 변수를 문화·스포츠활동, 종교활동, 친목활동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서적·도구적 지원의 질적 측면을 측정된 도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정서문제가 적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문제는 본 연구에서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도출되었는데, 다른 연구들[35][42]에서도 부정적인 정서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고, 삶의 질 모든 측면의 공통 예측인자라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 변수 중에서 가족/사회관계는 정서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질에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직접효과만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사회활동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문제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사회관계는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양적인 관계의 정도가 약한 것은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된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삶의 질을 예측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을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가족/사회관계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효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의 질적 측면의 향상에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업은 저소득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노인들이 주요 참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의 조건들을 마련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물리적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노인들의 정서적 건강성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가족/사회적 유대 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연계 등의 가족/사회적 지지체계를 확고히 설립하고 네트워크 체계의 밀도를 촘촘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자들의 삶의 질은 사회활동에 있어서 정서문제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정서문제에 대한 심리·정서적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의 저조로 인한 정서문제의 심화가 확인되었지만, 사실 정서문제의 악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사회문제이므로 정서문제의 초기 단계부터 심층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참여 대상노인에 대한 정서문제에 대한 사정(assessment), 효과적인 상담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의 효과성 강화를 위하여 가족기능 강화와 관계의 향상을 통한 심리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의 정서문제는 대상자의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민감성, 낙인감 등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정책이나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세심한 고려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개념들은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건강한 삶의 유지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므로 이러한 개인, 가족, 사회, 지역사회 환경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생태체계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과 가족/사회관계에 대한 질적 차원들을 심층적으로 규명해 내고 이를 통한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는 통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환범,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효과성 평가”,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4호, pp.81-100, 2010.
 [2] <https://kordi.go.kr/mainSub.do?mCode=B0571>
 [3] 조준, 김영희, 조지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294-304, 2014.
 [4] 김옥희, “대도시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보장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89-115, 2008.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6] E. Ferrans and J. Powers, “Psychometric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dex,”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15, No.1, pp.29-38, 1992.
 [7] 박자경,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모형 구축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8] 강현정,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1권, 단일호, pp.1-26, 2009.
 [9] 김학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삶의 주관적 만족과 참여만족간의 경로분석”, GRI 연구논총, 제13권, 제1호, pp.169-188, 2011.
 [10] 노승현, 노화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구축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1] 유광옥, 원유병, “노인들의 신체활동 유무·부적정서·경제적 수준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pp.197-205, 2010.
 [12] D. Blazer, 노년기 정신건강-노인의 정서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의 개입전략, 김동배, 김유심, 문수경 역, 학지사, 2007.
 [13] S. Peck and D. Dukes, In heaven as on earth: a vision of the afterlife, Hyperion, 1996.
 [14] L. Rice, Stress and health: principles and practice for coping and wellness, Brooks/Cole, 1987.
 [15] 김옥희,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5권, 제4호, pp.323-349, 2009.
 [16] 배나래, 박충선,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2호, pp.761-779, 2009.
 [17] 박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9호, pp.113-126, 2013.
 [18] 고재욱, 이동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1209-1228, 2011.
 [19]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2014.
 [20] 손장권, 조용하, “부산지역 노인의 사회활동, 사회관계 및 생애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대회 논문집, pp.497-509, 2004.
 [21] 정순돌, “노인의 가족유형과 고독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단일호, pp.255-274, 2001.
 [22] R. McPherso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aging and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Vol.2, pp.329-353, 1994.
 [23] 이길자, 안혜경, 김영선, “노인의 정신건강과 가족지지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회, 제1권, 제2

- 호, pp.181-194, 1999.
- [24] 김은경, 하규수,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12호, pp.811-820, 2013.
- [25] 최형임, 채현탁, 송인욱,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스트레스적 생활경험과 절망감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43권, 단일호, pp.183-202, 2009.
- [26] S. Maren, “Synaptic mechanisms of associative memory in the amygdala,” *Neuron*, Vol.47, No.6, pp.783-786, 2005.
- [27] 양순미, 홍성례, 홍숙자, “농촌노인의 사회활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14권, 제2호, pp.145-178, 2004.
- [28] 이상연, 이재형, “노인체육 편: 노년기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0권, 단일호, pp.787-797, 2007.
- [29] G. Koenig and J. Kvale, “Religion and health in later lif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35, No.10, pp.967-967, 1987.
- [30] L. Idler and S. Kasl, “Religion Among Disabled and Nondisabled Persons: Cross-sectional Patterns in Health Practices, Social Activities, and Well-being,” *Joura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52B, No.6, pp.S294-S305, 1997.
- [31] 김미숙, 박민정,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제20권, 제2호, pp.29-47, 2000.
- [32] 박영신, 김의철,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12권, 제1호, pp.161-195, 2006.
- [33] N. Krause,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Vol.2, No.4, p.349, 1987.
- [34] 한형수,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9권, pp.113-142, 2004.
- [35] 소희영, 김현리, 주경옥, “ICF 모델에 근거한 노인의 삶의 질 예측 모형”, *J. of Korean Acad Nurs*, 제41권, 제4호, pp.481-490, 2011.
- [36] A. Bowling, Z. Gabriel, J. Dykes, M. Dowding, O. Evans, A. Fleissig, and S. Sutton, S, “Let’s ask them: a national survey of definitions of quality of life and its enhancement among people aged 65 and ov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56, No.4, pp.269-306, 2003.
- [37] 김미령,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 노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197-222, 2006.
- [38] E. Shrout and N. Bolger,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7, No.4, p.422, 2002.
- [39] 김명숙, 고종욱, “여가활동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지지 매개역할”, 노인복지연구, 제60권, 단일호, pp.35-54, 2013.
- [40] 김영범, 이승훈,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서울 및 춘천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제28권, 제1호, pp.1-18, 2008.
- [41] M. Levasseur, S. Tribble, and J. Desrosiers, “Meaning of quality of life for older adults: Importance of human functioning component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49, pp.91-100, 2009.
- [42] L. Lin, M. Yen, and J. Fetzer, “Quality of life in elders living alone in Taiwa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17, No.12, pp.1610-1617, 2008.

저 자 소 개

장 신 재(Cin-Jae Chang)

정회원



- 1990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3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3년 9월 ~ 현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빈곤 가족, 공공복지, 삶의 질

조 자 영(Ja-Young Cho)

정회원



- 200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빈곤, 노인일자리, 사회복지행정